

The콕국어

- 띄어쓰기 완전정복

1단계

관련 어문 규정보기

제5장 띄어쓰기

제1절 조사

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.

꽃이	꽃마저	꽃밖에	꽃에서부터	꽃으로만
꽃이나마	꽃이다	꽃입니다	꽃처럼	어디까지나
거기도	멀리는	웃고만		

제2절 의존 명사,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

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.

아는 것이 힘이다.	나도 할 수 있다.
먹을 만큼 먹어라.	아는 이를 만났다.
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.	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.

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.

한 개	차 한 대	금 서 돈
소 한 마리	옷 한 벌	열 살
조기 한 손 ^{1.}	연필 한 자루	버선 한 죽 ^{2.}
집 한 채	신 두 켤레	복어 한 쾌 ^{3.}

1. 손5【의존명사】 물건을 한 손에 잡을 만한 수량을 세는 단위<조기·암치·통배추 따위는 큰 것과작은 것을 끼어 돌씩을, 미나리 따위는 한 줌을 이룸>.
2. 죽1【의존명사】 옷·그릇 등의 열 벌을 일컫는 말. ㉠ 버선 한 ~ / 접시 두 ~.
3. 쾌【의존명사】 1. 복어 스무 마리를 한 단위로 세는 말. ㉠ 복어 한 ~를 가져오다. 2. 『역』엽전 열 꾸러미. 곧, 열 냇을 한 단위로 세던 말. 관(貫). ㉠ 엽전 한 ~.

다만,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.

두시 삼십분 오초	제일과	삼학년	육층
1446년 10월 9일	2대대	16동 502호	제1어학실습실

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'만(萬)' 단위로 띄어 쓴다.

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
12억 3456만 7898

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.

국장 겸 과장	열 내지 스물
청군 대 백군	책상, 걸상 등이 있다.
이사장 및 이사들	사과, 배, 귤 등등
사과, 배 등속	부산, 광주 등지

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.

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

더콕국어
제3절 보조 용언

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,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.

(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.)

ㄱ	ㄴ
불이 꺼져 간다.	불이 꺼져간다.
내 힘으로 막아 낸다.	내 힘으로 막아낸다.
어머니를 도와 드린다.	어머니를 도와드린다.
그릇을 깨뜨려 버렸다.	그릇을 깨뜨려버렸다.
비가 올 듯하다.	비가 올듯하다.
그 일은 할 만하다.	그 일은 할만하다.
일이 될 법하다.	일이 될법하다.
비가 올 성싶다.	비가 올성싶다.
잘 아는 척한다.	잘 아는척한다.

다만,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,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.

잘도 놀아만 나는구나!	책을 읽어도 보고...
네가 덤벼들어 보아라.	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.
그가 올 듯도 하다.	잘난 체를 한다.

어머니를 도와 드린다. 어머니를 도와드린다.
그릇을 깨뜨려 버렸다. 그릇을 깨뜨려버렸다.
47항은 규범 항목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~!!

그러나~!!

도와주다의 높임 표현으로 ‘도와드리다’는 무조건 붙여 써야 합니다.
깨뜨려 버렸다는 ‘깨뜨려 버렸다’로 무조건 띄어쓰기 해야 합니다.
아래 제시한 띄어쓰기 보충자료를 활용해 주세요~!!

띄어쓰기 보충자료

더 꼭 국어
천지현T

좀더 보충



1. 제3절 본용언과 보조 용언 띄어쓰기 (47항)

<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, 경우에 따라 붙여 씀>

1) 띄어쓰기와 붙여 쓰기 모두 허용 5가지

- (1) 본용언+ 아/어+ 보조 용언 : (사과를) 먹어 보았다/먹어보았다
- (2) 관형사형 + 보조용언(의존 명사+ -하다/싶다): 아는 체하다/아는체하다
- (3) 명사형+보조 용언(딱 1가 ‘직하다’): 먹었음 직하다/먹었음직하다
- (4) 2음절 본용언+ 보조 용언: 나가 버렸다/나가버렸다, 빛내 준다/빛내준다
- (5) 보조 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: 적어 둘 만하다/적어둘 만하다, 읽어 볼 만하다/읽어볼 만하다

2) 무조건 붙여 1가지

- (1) ‘-아/-어 지다’와 ‘-아/-어 하다’가 붙는 경우: 낙서가 지워진다/아기를 예뻐한다

3) 무조건 띄어 4가지

- (1) ‘-(으)ㄴ가, -나, -는가, -(으)ㄴ까, -지 등의 종결 어미가 있는 경우
: 책상이 작은가 보다/ 그가 밥을 먹나 보다/집에 갈까 보다/ 아무래도 힘들겠지 싶었다
- (2) 구에 결합하는 ‘-아/-어 하다’ 구성: 먹고 싶어 하다/마음에 들어 하다
- (3) 앞말에 조사& 의존 명사 뒤 조사: 직접 먹어도 보았다/ 비가 올 듯도 하다
- (4) 앞 단어가 3음절 이상 합성 용언: 쫓아내 버렸다/ 집어넣어 둔다

2. 간시리즈

- 1) 간에는 우르사(탈락)/대박(변화)
- 2) 접사 간: 동안(이틀간,얼마가,당분간),장소(마구간,외양간)
- 3)의존 명사 간: 부부간, 모녀간,형제간 - 가족 관계 3음절 합성어

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

제48항 성과 이름,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, 이에 덧붙는 호칭어,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.

김양수(金良洙)	서화담(徐花潭)	채영신 씨
최치원 선생	박동식 박사	충무공 이순신 장군

다만, 성과 이름,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.

남궁억/남궁 억	독고준/독고 준	황보지봉(皇甫芝峰)/황보 지봉
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며 원칙으로 하되,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.(ㄱ을 원칙으로 하고, ㄴ을 허용함.)

ㄱ	ㄴ
대한 중학교	대한중학교
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	한국대학교 사범대학

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며 원칙으로 하되, 붙여 쓸 수 있다.

(ㄱ을 원칙으로 하고, ㄴ을 허용함.)

ㄱ	ㄴ
만성 골수성 백혈병	만성골수성백혈병
중거리 탄도 유도탄	중거리탄도유도탄

2단계

The 꼭 이해하기 1~8

1. 조사

조사의 연속→ 붙여 쓴다.

학교에서처럼
나에게만이라도
여기서부터입니다
아이까지도

어미 뒤 조사→ 붙여 쓴다.

말하면서까지도
사과하기는커녕
먹을게요
놀라기보다는
맘준그래⁴.
오는군요

더 꼭 국어
천지현T

2. □의존 명사가 조사, 어미의 일부, 접미사 등과 형태가 같아 띄어 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.

(1)

들

의존 명사→ 띄어 쓴다.

●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
구조에서 ‘그런 따위’라는 뜻을 나
타내는 경우
; 의존 명사 ‘등(等)’으로 바꾸어 쓸
수 있음
쌀, 보리, 콩, 조, 기장 등을 오곡
(五穀)이라 한다

접미사→ 붙여 쓴다.

●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
남자들, 학생들

4. 그래: ‘-구먼’, ‘-군’, ‘-지’와 같은 하계체나 해체의 일부 종결 어미 뒤에 붙어, 듣는 사람에게 그 말의 뜻을 강조하
면서 공감을 요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.

차

●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때

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, 마침
침 가려던 차였다

째

접사로만 사용

●명사 뒤에 붙어 '목적'의 뜻을 더
하는 경우

인사차 들렀다, 사업차 외국에 나
갔다

●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나 명사구
의 뒤에 붙어, '계속되는 동안'의
뜻을 더하는 말.

이틀째, 육 개월째

●일부 명사의 뒤에 붙어, '그대로'
또는 '전부'의 뜻을 더하는 말.

통째, 뿌리째

의존명사로만 사용

채1

●주로 '-은 채(로)'의 구성으로 쓰
여, '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'의
뜻을 나타내는 말.

김 씨는 노루를 산 채로 잡았다.

●집의 덩이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
말.

그 분은 단독 주택이 백여 채 정도
가 모여 있는 동네에 사신다.

(2)

의존 명사→ 띄어 쓴다.

조사→ 붙여 쓴다.

대로

●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
우

아는 대로 말한다, 약속한 대로 하
세요

●체언 뒤에 붙어 '그와 같이'라는
뜻을 나타내는 경우

법대로, 약속대로

만큼

●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
우

볼 만큼 보았다, 애쓴 만큼 얻는다

●체언 뒤에 붙어 '앞말과 비슷한
정도로'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

중학생이 고등학생만큼 잘 안다,
키가 전봇대만큼 크다

뿐

●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
우

웃을 뿐이다, 만졌을 뿐이다

●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 의미의 뜻을
나타내는 경우

남자뿐이다, 셋뿐이다

만

●시간의 경과나 횟수를 나타내는
경우

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, 세
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

●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
뜻을 나타내는 경우

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, 이것은
그것만 못하다

(3)

의존 명사→ 띄어 쓴다.

어미의 일부→ 붙여 쓴다.

(조사와 결합할 수 있음)

지

●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
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, 그를
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

데

●임의의 장소를 나타내는 말

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.

●앞에서 말한 바로 그 일이나 그
사실을 나타내는 말.
패러글라이딩은 자유를 맛본다는
데에 매력이 있다.

바

●앞에서 말한 내용 자체를 그대로
대상화시키는 뜻

이 제도는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
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, 그대로 실행
할 것입니다.

●어미 ‘--(으)ㄴ지, --ㄴ지’의 일부
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, 어떻게
할지 모르겠다

●어미 ‘--ㄴ데(는데)’의 일부

;의외의 사실을 인정함
겉보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.

●어미 ‘--ㄴ데(는데)’의 일부

;관련될 만한 사실을 먼저 제시함
그는 키는 큰데 체구가 작다.

●어미 ‘--ㄴ바/는바’의 일부

;관계되는 배경이나 근거 따위를
제시하는 데 쓰는 말

우리의 목표는 승리에 있는바 모두
들 그것을 향해서 매진해야 할 것
이다.

(4)

의존 명사→ 띄어 쓴다.

어미→ 붙여 쓴다.

걸

vs

(으)ㄴ걸

●걸: 의존 명사 ‘거’에 목적격 조사 ‘ㄴ’이 붙은 말. ‘것을’의 구어적
표현이다.

옷을 좀 깨끗한 걸 입고 다녀라.

듯

●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쓰일 경우
그가 먹은 듯

●-(으)ㄴ걸: 화자가 추측한 어떤
사실을 상대방에게 가볍게 반박하여
나타내거나 스스로 가볍게 감탄하
여 나타내는 말

아마 지금쯤 반환점을 돌았을걸.

●-(으)ㄴ걸: 이미 지난 일을 가볍
게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뜻을 나
타내는 말. 주로 혼잣말에 쓰인다.
아까 혼자서라도 저녁을 먹을걸.

●용언의 어간 뒤에 쓰일 때
구름에 달이 흘러가듯

(5)

의존 명사→띄어 쓴다.

복합어 형성→붙여 쓴다.

판

●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때
바둑 두 판,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

●합성어의 어근

노름판, 씨름판, 웃음판

간

●대상과 대상의 공간적인 사이를 나타내는 말.

서울과 부산 간

●일부 명사 뒤에 붙어, '동안'의 뜻을 더하는 말.

며칠간

●일부 명사 뒤에 쓰여, 대상과 대상의 상호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.

부모와 자식 간에

3. □보조 용언은 띄어 쓸 원칙으로 하되, 경우에 따라 붙여 쓸 수도 허용한다. 다만,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,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.

(1)

보조 용언이라도 띄어 쓴다.

보조용언→붙여 쓸 수 있다.

‘본용언+-아/--어+

●앞말(본용언)에 조사가 붙는 경우
먹어만 보았다.(○)

먹어 보았다.(○)

보조

먹어만보았다.(×)

먹어보았다.(○)

용언’

●앞말(본용언)이 합성 동사인 경우
집어넣어 둔다.(○)

●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그 활용형이 2음절인 경우

집어넣어둔다.(×)

나가 버렸다.(○)/ 나가버렸다.(○)

구성

●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

공부해 보아라.(○)

빛내 준다.(○)/ 빛내준다.(○)

공부해보아라.(×)

구해 본다.(○)/ 구해본다.(○)

●‘-아/-어 하다’가 구(句)에 결합하는 경우에는

먹고 싶어 하다.(○)

●‘-아/-어 지다’와 ‘-아/-어 하다’가 붙는 경우

먹고 싶어하다.(×)

낙서가 지워진다.

아기를 예뻐한다.

마음에 들어 하다.(○)

마음에 들어하다.(×)

내키지 않아 하다.(○)

내키지 않아하다.(×)

● 보조 용언 앞에 ‘-(으)ㄴ가, -나, -는가, -(으)ㄴ까, -지’ 등의 종결

어미가 있는 경우

책상이 작은가 싶다.

그가 밥을 먹나 보다.

집에 갈까 보다.

아무래도 힘들겠지 싶었다.

‘관형사형

+보조

용언(의존

명사+-하

다/싶다)’

구성

●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

뛰노는 척하다(○)

뛰노는척하다(×)

아는 체하다(○)

아는체하다(○)

●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

아는 체를 하다(○)

아는체를 하다(×)

더 꼭국어
천지현

4. □관형사와 접두사의 형태가 같아서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.

*관형사: ①여러 명사를 두루 꾸민다. ②체언과의 사이에 다른 말이 끼어 들 수 있다.

(1)

관형사→ 띄어 쓴다.

맨

● 그보다 더할 수 없을 정도로 가
장.

맨 처음

● 다른 것은 섞이지 않고 온통.

앞산은 맨 철쭉으로 물들어 있었다

접두사→ 붙여 쓴다.

● 일부 명사 앞에 붙어, ‘다른 것을
더하지 않은’의 뜻을 더하는 말.

맨눈, 맨발

5. □부사가 복합어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뒤의 말과 한 단어가 되었으므로 붙여 쓴다.

(1)

부사→띄어 쓴다.

못

●부정의 뜻

물이 더러워져서 못 마시게 되었다.

합성어의 어근→붙여 쓴다.

●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는 정도로 하다

노래를 영 못한다.

●보조 용언으로 쓰이는 경우
여행을 가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.

파생어의 어근→붙여 쓴다.

●사람이나 그 성질, 언행 따위가
몹시 좋지 않고 고약하다.

세상에는 선한 사람과 못된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이다.

●(일이) 제대로 되지 못하다.
농사가 못되어 걱정이다.

6. □관형사가 합성어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뒤의 어근과 한 단어가 되었으므로 붙여 쓴다.

(1)

관형사→띄어 쓴다.

전

●한자어 명사 앞에 쓰여, ‘전체의’
또는 ‘모든’의 뜻을 나타내는 말.
전 인류

첫

맨 처음의
첫 월급, 첫 친정 나들이

현

●현재의
현(現) 제도, 전(前) 내무부 장관

합성어의 어근→붙여 쓴다.

전세계

첫사랑, 첫걸음

현시점

7. □용언이 합성어의 어근으로 쓰이는 경우 구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.

*구에 쓰인 용언: ①서술성이 있다. ②주어를 말할 수 있다. ③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다.

(1)

구→띄어 쓴다.

합성어→붙여 쓴다.

큰 집/

큰집

●다른 일반의 것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더한 상태이다.
그녀는 아주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.

●아우나 그 자손의 입장에서 만형 또는 그 자손의 집을 이르는 말.
시골 큰집에 내려갔다.

8. 판별이 어려워~~

□조사임을 몰라서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.

(1)

조사→붙여 쓴다.

밖에

●체언이나 부사어의 뒤에 붙어, ‘그것 이외에는’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젠 내겐 너밖에 없어.

너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니?

하고

●체언의 뒤에 붙어, 둘 이상의 대상을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.

너하고 나는 이쪽에 있자.

●체언의 뒤에 붙어,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함께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.

나하고 놀자.

cf. 동사

‘말하다’, ‘묻다’, ‘생각하다’ 따위의 인용 동사와 함께 쓰인다.

하고

띄어쓰기

김 사장은 직원들에게 “이제 다시 시작합니다.” 하고 말했다.

□어미임을 몰라서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.

(2)

어미→ 붙여 쓴다.

-(으)ㄴ^ㅁ밖
에

●‘그것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음’의 뜻을 나타내는 말

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니 내가 직접 갈밖에.

-(으)ㄴ^ㅁ수
록

●어떤 일의 정도가 더하여 감에 따라 다른 일의 정도가 그에 비례하여 더하거나 덜하여 감을 나타내는 말
차가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?

-(으)ㄴ^ㅁ지

●어떤 사실에 대하여 막연하게 추측하거나 의문을 나타내는 말
내일은 비가 올지 모른다.

-(으)ㄴ^ㅁ지
라도

●어떤 일을 양보하여 가정하나 그것이 뒤 절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
내가 비록 먼저 떠날지라도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.

-(으)ㄴ^ㅁ지
언정

●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가정하나 대립적인 뒤 절의 사실이 그것에 구속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.
그녀와 헤어질지언정 내가 먼저 사과하는 일은 없을 거야.

□자립 형태소임을 몰라서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.

(3)

의존 명사→ 띄어 쓴다.

겸(兼)

●둘 이상의 명사 사이에 쓰여, 두 명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.

아침 겸 점심.

강당 겸 체육관.

장관 겸 부총리.

●관형사형 어미 ‘-을’ 뒤에 쓰여,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아울러 함을 나타내는 말.

친구와 이야기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할 겸.

구경도 할 겸 물건도 살 겸.

대(對)

●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

한국 대 일본

남자 대 여자

5 대 3

등(等),

등등,

등속,

등지

등

●사물을 열거할 때

ㄱ, ㄷ, ㄴ 등은 파열음에 속한다.

과자, 과일, 식혜 등등 먹을 것이 많다.

충주, 청주, 대전 등지로 돌아다녔다.

●여러 개를 열거하지 않고 하나만 제시한 뒤에 ‘등’을 쓸 때

;표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제시한 것 외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냄

지나친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킨다.

따위

●두 개 이상의 사물을 벌여 말할 때, 그 마지막 명사 뒤에 쓰여, 그것이 같은 부류임을 나타내는 말.

배추, 상추, 무 따위

너 따위가 감히…….

(4)

부사→픽어 쓴다.

내지

●수량을 나타내는 말 사이에 쓰일 때

열 명 내지 스무 명.

천 원 내지 이천 원.

비가 올 확률은 50% 내지 60%이다.

●앞 내용이거나 뒤 내용임을 선택적으로 나타낼 때

물질적 내지 계급적 측면.

많은 기업들이 변화 내지 혁신을 내세우며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.

및

●‘그리고, 그 밖에, 또’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

원서 교부 및 접수

사과, 배 및 복숭아

(5)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

한 낱말처럼 익은 것->은 붙여
쓴다.

곧이곧대로
난데없이 남의집살이
뜬구름
보나마나 보잘것없다 불으락푸르락
알은체하다 어느새 어찌고저찌고
엮히고설키다 여기저기 여봐란듯이
오나가나 오다가다 이러나저러나
이러니저러니 이러쿵저러쿵 자나깨나
주고받다 쥐죽은듯
터무니없다

더콕국어
천지현T

기출 문제로 자신감 up~!!

0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부모님을 한 달에 두 번꼴로 찾아뵈려고 노력한다.
- ② 서류를 정리할 때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면 편리하다.
- ③ 이미 그 일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.
- ④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은 지 모르겠다.

02 다음은 어느 부처 공문의 일부이다. 밑줄 친 부분을 잘못 고친 것은?

제목 : 위탁 교육 운영 계약 체결 의뢰

우리부 직원들의 정보화 및 사무자동화 능력 향상을 통해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‘2009년 하반기 부내 정보화 교육’을 추진할 계획인 바, 이 교육의 위탁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아래 밝힌바와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① 우리부 → 우리 부
- ② 기여하고자 → 기여하고저
- ③ 계획인 바 → 계획인바
- ④ 밝힌바와 → 밝힌 바와

03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집에서만이라도 제발 편히 쉬어라.
- ② 요즘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었다.
- ③ 이번 출장은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서입니다.
- ④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떨어졌다.

04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?

- ①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 하였기 때문이야.
- ② 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.
- ③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.
- ④ 금연을 한 만큼 네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지 궁금해.

05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?

- ①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 보다는 자상한 아버지이다.
- ② 그는 황소 같이 일을 했다.
- ③ 하루 종일 밥은 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.
- ④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.

06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?

- ①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.
- ②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.
- ③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.
- ④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.

0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이처럼 좋은 걸 어떡해?
- ② 제 3장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.
- ③ 공사를 진행한 지 꽤 오래되었다.
- ④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.

08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?

- ① 그가 고향을 떠난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.
- ② 이 건물을 짓는 데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?
- ③ 옆집에서 잔치를 하는 지 아주 시끄럽네요.
- ④ 빠른 시일내에 원상태로 복구하겠습니다.

09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무엇을 ∨ 해야 ∨ 할 ∨ 지 ∨ 모르겠다.
- ② 내가 ∨ 너라도 ∨ 그렇게 ∨ 할 ∨ 수밖에 ∨ 없었을 ∨ 거야.
- ③ 차 ∨ 한 ∨ 대가 ∨ 쏜살같이 ∨ 지나가는 ∨ 것을 ∨ 봤습니다.
- ④ 교실 ∨ 안에는 ∨ 가방, ∨ 체육복, ∨ 신발 ∨ 들이 ∨ 어지럽게 ∨ 널려 ∨ 있었다.

10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?

- ①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에 작은 소요가 있었다.
- ② 우리는 모임에서 정한대로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.
- ③ 수정 요청시 연관된 항목을 재조정 하여야 할 것이다.
- ④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뿐 아니라 추진력마저 없는 사람이다.

11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줄지에 부도를 맞았더니 참 안됐어.
그렇게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돼.
- ②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게.
지금 네가 본 것은 실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.
- ③ 저 집은 부부 간에 금실이 좋아.
집을 살 때 부모님이 얼마간을 보태 주셨어.
- ④ 저 사람은 아무래도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야.
지난번 해일이 밀어닥칠 때 집채만 한 파도가 해변을 덮쳤다.

12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모두 바른 것은?

- ① 꽃잎이 한잎 ∨ 두잎 강물에 떠내려가 ∨ 버렸다.
- ② 이곳에서 주문할 물품의 개수는 스물내지 ∨ 서른 정도입니다.
- ③ 부장 ∨ 겸 ∨ 대외협력실장을 맡고 계신 김부장님을 모셨습니다.
- ④ 김 ∨ 동식 ∨ 박사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신 ∨ 만큼 큰 상을 받게 되셨다.

13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?

- ① 글썽요, 아마 그 친구가 먼저 갔을 걸요.
- ② 이분이 우리 총무 팀의 팀장 겸 감사 부장이십니다.
- ③ 어머니는 이제야 아들을 겨우 알아 보시는 상황이 되었다.
- ④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한 번 해 보아야 할 것이다.

14 밑줄 친 부분 중 띄어쓰기에 맞지 않는 것은?

- ① 난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.
그는 나와 동창인바 그를 잘 알고 있다.
- ② 사람은 항상 배운 대로 행동하기 마련이다.
사회의 규범대로 움직여야 타인의 지탄을 받지 않는다.
- ③ 어른들이 다 떠나시니 나도 떠날 밖에.
그밖에 더 논의할 사항은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.
- ④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화합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.
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.

15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형은 비밀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안절부절 못했다.
- ② 학부모 간담회에는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다.
- ③ 서류를 검토한 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.
- ④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나에게 는 그 가치를 평가할 만한 심미안이 부족하다.

16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것은?

- ① 그 길을 걸어 온 사람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.
- ② 대책 없이 쓸 데 없는 일만 콜라 하니 저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.
- ③ 이 기계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없었다.
- ④ 예기치 못했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바 재발 방지책을 찾아야 한다.

17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은?

- ① 이 일은 세상 사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결과를 낳을 듯 싶다.
- ② 내가 어렸을 때는 밖에 나가 노는 것 밖에는 해야 할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.
- ③ 이번 시험에서는 100점은커녕 50점 받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.
- ④ 열 내지 열 한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실 안에 남아 있는 듯하다.

18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?

- ① 집밖에 V 나가서 V 놀지 V 않을래?
- ② 길동이는 V 잘난체 V 하는 V 것도 V 뭇지가 V 않아.
- ③ 음식은 V 각자 V 먹을만큼만 V 접시에 V 담아 V 가세요.
- ④ 자료를 V 검토한바 V 몇 V 가지 V 미비한 V 사항이 V 발견되었다.

19 띄어쓰기가 잘못된 문장은?

- ① 이제 봄이 옵니다그러.
- ② 집에서처럼 그렇게 해야겠지?
- ③ 사과하고 배하고는 과일입니다.
- ④ 나가면서 까지도 말썽을 피우고 있다.

20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너 말 한번 잘 했다.
- ② 값이 얼마지 한번 물어보세요.
- ③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한번밖에 못 만난다.
- ④ 한번 엮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.

21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?

- ① 부모와 자식간에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.
- ② 김 양의 할머니는 안동 권씨라고 합니다.
- ③ 내일이 이 충무공 탄신 500돌이라고 합니다.
- ④ 이번 여름에는 카리브 해로 휴가를 가기로 했어.

준말 연습문제

연구하도록

청하건대

마뜩지 않은

변변하지 않은

간편하게

다정하다

거북하지

삼가지 않은

생각해 보건대

뵈었던

저 아이

되었어

어떻게 해

괴어(), 괴었다()→보따리를 ()놓고

되어(), 되었다()→일이 잘 () 갑니다.

뵈어(), 뵈었다()→안경을 쓰니 작은 글자도 잘 ().

쇠어(), 쇠었다()→설 () 한 살 더 먹었다.

썩어(), 썩었다()→햇볕 () 말려라.